

종군위안부 사진展 日서 개최

日작가 伊藤씨 韓中등 생존자 近황담아

日本の 한 사진작가가 南北韓 中國 臺灣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지를 찾아다니며 찍은 前종군위안부들의 살아가는 모습 사진들이 일본에서 순회전시되고있다. 종군위안부들의 近황을 1백70여점의 사진으로 담아 전시하고있는 사람은 日사진가협회회원인

이토 다카시(伊藤孝司·41·사진).

그의 사진전은 이달의 東京과 나고야(名古屋)에 이어 내달 1~7일엔 오사카(大阪) 인근의 이타미(伊丹)市에서 계속된다.

이토는 또 前종군위안부들의 증언을 수록한 사진집「깨

어진 침묵」도 발간, 일본내 시민단체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진집은 韓國 11명, 北韓 4명, 필리핀 18명, 中國 대만 인도네시아 각 1명등 모두 36명의 前종군위안부가 살아가고있는 모습과 각국의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등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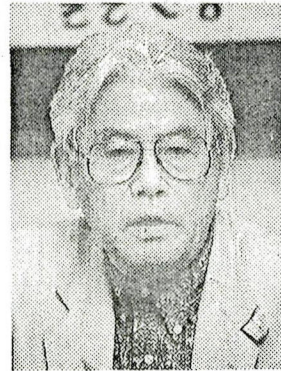
하며 벌이는 활동상을 담고 있다.

이토는 지난 1년반동안 南北韓등 각국을 방문, 前종군위안부에 대해 취재해 왔으며 그 결과를 사진전시회와 사진집을 통해 보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1년10월 다른 사진취재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가 前종군위안부 金學順씨(69)를 만나『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종군위안부에 대해 취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토는 反核운동의 일환으로 지난80년대 중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피해자들을 취재하던 중 처음으로 한국인 피폭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계기로 87년「원폭棄民—한국 조선인 被爆者の 증언」이라는 사진집을 내기도 했다. (東京=龔仁俊)

잠깐...



위안부문제 법률가모임 준비차 來韓

「日전쟁책임 자료센터」荒井 대표

방문했다.

· 지난4월 젊은 학자들과 함께「전쟁책임자료센터」를 결성, 종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에 진력하고 있는 아라이 교수는 오는 8월9일 동경에서 열릴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합동모임의 실무준비차 한국에 왔다. 『우리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을 조사해 발

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또한 육군성 비밀문서철(陸亞密大日記)에는 42년 1년동안 위안소에 보낸 콘돔의 개수가 3천2백1만 여개에 달한다고 기록돼 위안부의 수가 어느정도였는지를 가늠할수 있게해준다. 아라이교수는『이처럼 종군위안부의 강제징집을 입증하는 자료가 방위청에만도 수천점 보관되어 있는데

위안부모집 입증자료 일본내 수천점 日 증언청취단 한국파견은 기만행위

『일본 정부는 8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내기전에 무엇보다 먼저 일본국내에 있는 수천점의 종군위안부 관련자료를 조사,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26일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대표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교수(67)가 29일 한국을

굴해낸 자료 60점에는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군이 종군위안부를 강제연행했고 위안부모집이 육군중앙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이교수에 따르면 당시 육군성의무국 의사과장이던 가네하라 세쓰조(金原節三)의 업무일지에는 육군성 중앙수뇌부가 위안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위안부가 경찰력에 의해 강제징집되었

「더이상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겠다」며 증언청취단을 파견한 일본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책임을 우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燕暎)